

정기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5년 2월 17일(화) 12:30-16:00

□ 개최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회의실

□ 총이사수 : 8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한정국 이사, 배극수 이사,
정순돌 이사, 박성남 이사, 손병덕 이사 이상 8명

□ 출석감사 : 이천화 감사 이상 1명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8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5년도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 의안> 법인 감사 보고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먼저 법인의 감사이신 이천화감사님께서 이랜드복지재단의 2014년 결산에 대해 감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이천화 감사 : 2015년 1월 28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보고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의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의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하면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회계프로그램 활용을 효과적으로 잘하여 페이퍼워크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업무개선이 있었습니다. 행정 및 회계업무시스템의 개선도 관계기관을 포함 다른 비영리단체에 홍보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복지사업 뿐 아니라 행정회계업무에 대한 사례지원도 복지재단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감사합니다. 현재 복지재단에는 다른 기관 및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경영 사례집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4권까지 발간된 상태이며 정부기관, 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견도 지식경영 사례집에 추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 및 기관들이 회계분야를 굉장히 어려워하여 이 분야 지원을 위해 1차 교육 후 지역의 회계사와 1:1 매칭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지원을 사회복지협의회와 이랜드복지재단이 함께 진행하

였으며, 2015년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형주 이사 : 복지재단의 지식사례집 및 행정회계 매뉴얼을 잘 준비하여 열악한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추가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신성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제 2호 의안> 법인 및 산하복지관 2014년 결산 보고 및 2015년 예산 사업계획 심의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은 정영일 사무국장께서 복지재단의 2014년 결산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먼저 2014년 결산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랜드복지재단의 2015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의 18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예산액 12,468,220,000원, 결산액 11,646,096,022원으로 예산대비 93.4%의 목표를 달성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22페이지에 있으며, 그룹후원금, 이삭줍기 등 그룹 및 직원 이외의 일반기부금의 목표를 8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5억원 정도로 62%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액이 다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년마다 그룹기부금이외의 일반기부금 및 인큐베이팅 기부사이트를 통한 모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8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을 보시면 현재 복지재단의 2가지 대표사업 중 인큐베이팅(위기가정지원사업)사업은 32억원, 산하기관 전출금은 2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하기관 중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봉화노인복지관은 개관 후 첫해를 맞아 기초투입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수탁 약정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복지재단의 성과지표 중 정량적인 것을 대략 4가지 정도 관리해 왔습니다. 인큐베이팅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642가정을 지원하였고 봉화군노인복지관의 신규수탁으로 총 산하기관 11개 기관 운영, 1,080명의 직원을 나눔에 참여시켰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53%로 다소 참여율이 저조하여 아쉽습니다.

인큐베이팅 BPR을 통해 작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복지재단은 절대 빈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오히려 수급자 비율이 높아 재단의 사업방향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초점을 일반인 중 절대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로 다시 포커싱을 했는데 이후, 35~40%정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신청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진행한 결과 하반기 847건의 접수가 되었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강북실버복지센터(노인요양원)가 개관 초에는 운영부분의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관장 1명, 부장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랜드 산하기관의 교육지표들을 보시면 총 예산이 약 287억, 일 평균 이용자 수는 일평균 11,889명, 일 평균 식수인원 3,806명 정기 자원봉사자 84,567명입니다. 일부 복지관들이 독거노인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5,000명으로 독거노인이나 재가복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407명 어르신들께서 취업을 하셨으며 앞으로 순수 취업부분도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약 1200명 정도 사례관리하고 있고 취약

계증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도 양적, 질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국 이사 : 민간단체차원에서 TF를 만들어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복지 매커니즘을 개발해서 정부와 공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 정순돌 이사 : 정부시스템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랜드복지재단이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한정국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형주 이사 :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집행의 측면에서 필드까지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복지재단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정국 이사 : 서양 복지와 동양 복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은 개인주의, 동양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 매커니즘이 서구화 되면서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 매커니즘이 가족의 끈끈함을 절연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랜드가 제 3의 길로 새로운 매커니즘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형주 이사 : 지식경영과 인큐베이팅 사업이 가장 특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식경영이 발달을 한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이 것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러 민간단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기관이 적용하기엔 쉽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식경영 등을 만들어서 전파해 주시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인큐베이팅에 관한 것인데 인큐베이팅은 지자체에서 정부 주도하에 많은 부분 지원되고 있고 중복되는 내용 있긴 하지만 민간에서는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이라는 타이틀은 사회적 기업이나 초창기 사업 임플랜팅 하는데서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랜드 위기가정 인큐베이팅'등으로 타이틀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작년에도 사업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 박성남 이사 : 대국민적으로 가까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결산 및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림 복지재단의 2014년 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에 대해 심의를 구하고 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정영일 사무국장께서 이랜드복지재단 2015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이사회자료집 40페이지의 2015년도 이랜드복지재단의 예산보고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6,986,330천원입니다. 주 사업은 이랜드산하기관 운영사업 및 2015년 신규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재단이 직접 이랜드 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아동결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직원수련회에서 약 1,000명 결연을 목표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은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으로 이관하여 진행됩니다.

▶ 윤형주 이사 : 아동결연 모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배경이 있나요?

▶ 정영일 국장 : 월 2만원이며, 아동결연을 하고 싶어 하는 요구는 있으나 아동결연 기부금이 다소 높아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이 많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다른 NGO에서 하는 것과 내용을 동일하되 기부금은 줄이면서도 결연아동에게 동일한 기부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이를 직원에게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직원 수련회 참여자 가운데 50%정도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여러 내용들은 운영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잘 지원 되고 있는 NGO들을 벤치마킹하여 기획 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박성남 이사 : 그럼 2만원 하면 아동에게 얼마가 지원되며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정영일 사무국장 : 현지 운영비 빼고 18,000원이 지원되며, 현재는 이랜드그룹이 진출한 인도 및 동남 아지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정국 이사 : 아프리카 현지에서 들었는데 어느 날 가난한 동네에서 한 아이가 결연을 통해 운동화를 신고 오고 책가방을 들고 오고 이려는 것이 굉장한 위화감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아동결연으로 지원만하는 방식은 모금에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저희 복지재단도 그런 간극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지역개발을 병행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윤형주 이사 :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잘 준비하여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복지재단의 2015년 예산보고와 사업계획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